

# 3조1000억 규모 ‘AX 혁신 프로젝트’ 본격화

〈인공지능 전환〉

호남·대경 등 4개 권역 거점 조성...과기부 보고회

광주에 생활밀착형 AI 기술 개발·실증 인프라 구축

정부가 내년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서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AX(인공지능(AI)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1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2025년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연찬회 및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

해 성과와 내년 계획을 공유했다.

정부는 5국3특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4개 권역에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AI혁신 거점 조성을 확정된 상태다. 내년에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거점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호남권에서는 광주를 중심으로 일상

생활·에너지·모빌리티 등 생활밀착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개발형 실증 인프라 구축이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총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거점을 통해 호남권 특화 산업과 연계한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연구 자원과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역 디지털 사업 성과에서도 호남권의 AI 적용 확산은 두드러졌다. 광주·전남에서는 농식품·해양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

혁신이 확산됐다. 식용곤충 생육 관제 기술을 고도화한 광주의 코리아노바㈜, 기후변화 대응 감·전복 양식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은 지역 특화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부권·강원·제주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인공지능 혁신거점 추가 조성을 위한 기획 작업에 착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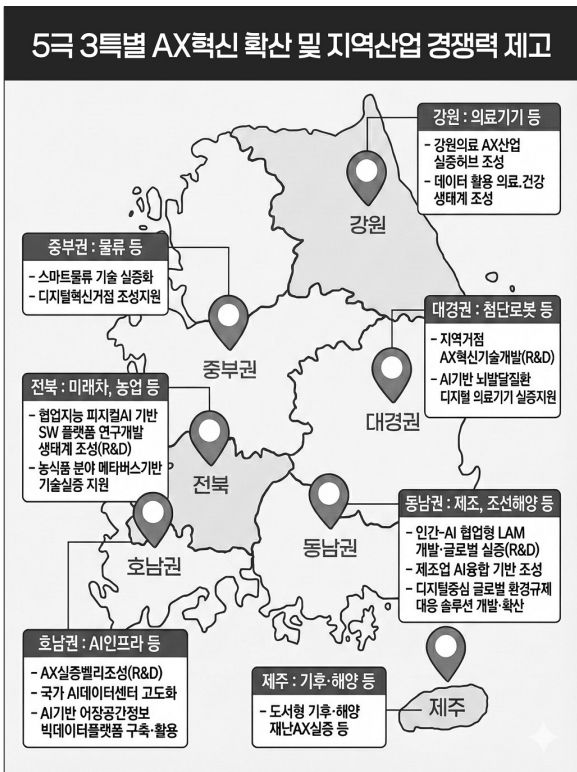
지역 산업 구조와 보유 인프라, AI 전환 역량 등을 고려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2027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

이다.

정부는 지역 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세계는 이미 초거대 AI에서 퍼지컬AI까지 영역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기술전쟁이 본격화됐다”며 “5국3특 지역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체육인재개발원 장흥서 개원...스포츠 미래 요람 기대

총사업비 415억원 들어 교육·숙박시설·실내체육관 등 시설 마련

국내 유일 체육인 종합교육 기반 구축...전남도 “성공 운영 최선”

전남도는 11일 대한체육회가 장흥에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체육계 주요인사, 전남도·시군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한민

국 스포츠 미래의 요람으로서 첫 걸음을 축하하고 비전을 응원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은 대한체육회에서 2020년 부지 선정을 전국 공모방식으로 추진해 장흥군에서 유치했다. 장흥 부산면 지천길 52-25 일원에 총사업비

415억원을 들어 교육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관 등 체육인 교육을 위한 종합단지로 대한민국 유일의 체육인 종합 교육 기반이 마련됐다.

체육인재개발원은 향후 국내 체육인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체육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 예정이다. 다양한 체육인 교육은 전국 체육인의 교류와 정보교환으로 전남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타 지역 체육인의 매력

적 전남 관광지 방문 기회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잡아 스포츠 발전과 저변 확대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남도와 대한체육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통일교 의혹’ 전재수 장관 면직

이 대통령 재가...내각 첫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유연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귀국 직후인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 메시지를 보내 면직안 재가 소식을 전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지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한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 표명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정치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3시간가량 접견 조사했다. 연합뉴스

## 광주, 광융합·인공지능 기술 인프라 방위산업 확장

시, 방위산업 육성 산·학·연 전략회의 개최

‘K-방산 세계화’ 맞춰 지역방위사업 모색

광주시가 방위산업을 지역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목포시 상그리아 비치호텔에서 ‘광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광기술원 등 산·학·연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해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춘 방위산업 기획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케이(K-)방산’을 세계화

하기 위해 국방반도체를 첨단 무기체계 핵심 부품으로 규정하고 기술 국산화·자립화에 힘쓰고 있다.

내년에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회의 첫날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산업 육성 전략, 광주 방위산업의 세부 추진 과제, 군(軍) 수요 기반 과제 발굴, 방위기업 수요조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광주시의 광융합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인프라를 활용, 국방반도체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3년 광주국방벤처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지역기업의 방위 기술 개발과 방위시장 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방반도체 분야 육성을 지역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본격적인 산업 육성에 앞서 ‘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지난달 25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손두영 시 미래산업총괄관은 “광주는 광·가전산업 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성장한 데 이어 방위산업까지 산업지평을 확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방치된 빈집, 지역 자산으로...행안부, 5곳 선정

지역별로 2억원씩 특교세 지원

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전남 담양군과 해남군 등 전국 5곳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별 2억원씩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인구 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방치된 빈집을 단순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체 빈집 매입·리모델링한 뒤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향후 조성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지역 공동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 협력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는 빈집도 잘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빈집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돕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亞문화중심도시 ‘5년 연장’ 아특법 개정 발의

민행배 의원 “보수정권마다 흔들...더는 미룰 수 없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행배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11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한 대표 국가프로젝트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사업이 위축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 폭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국비보조금은 2023년 513억원, 2024년 220억원, 2025년 172억원으로 급감해 문제인 정부 당시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국비 투입률 또한 현재 30%에 불과해, 향후 3년간 필요한 국비 1조원 규모의 국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자원한 이후, 예산·조직·기한문제 등 조성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2025년·2026년 국정감사에서



제 등을 문제부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예산의 원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성사업 종료 3년을 앞두고, 사업의 법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민 의원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조성사업이 크게 흔들린 현실을 더는 방지할 수 없다”며 “사업 유효기간 종료야 눈앞인 만큼,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특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시대로 도약국회토론회’에서 논의된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고, 이번 개정안에도 8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정부,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추진

기재부 업무보고...국유재산 활용 수도권 주택공급

정부가 국가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부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 법적으로 설립된 유일한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다. KIC는 주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맡긴 외환보유액 일부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인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300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가치·활용도 적극 추진한다.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제값을 받고 처분되되,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00억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시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거쳐도록 하고, 부처별 매각 전문심사 가구를 신설하는 등 관련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자산은 선제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수도권 소재 국유재산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 폐피출소 등을 활용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5000호 착공을 계획 중이다.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폭도 대폭 확대한다.

이번 국부창출 방안에는 공공조달을 활용해 인공지능(AI), 로봇, 기후테크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연간 1조원에서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도 5000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가계약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AI 제품·서비스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고, 국가계약 특례 신설·연계를 통해 공공 부문 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강화한다.

연합뉴스